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을 통해서 본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

4월 23일 강의 계획서

베드로의 병자 치유와 복음 선포

1. 베드로가 불구자를 치유한 사건(사도 3,1-10)

앞은뱅이였던 그 사람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췌충췌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사도 3,8)

- (1) 처음으로 내부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 이 사람
- (2) 그가 치유된 다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느님에 대한 찬미였다
- (3) 우리 안에 감사함을 없애버리는 요인들

2. 치유기적에 근거한 베드로의 복음 선포(사도 3,11-26)

온 백성은 그가 걸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 (1) 솔로몬 주랑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사도 3,8-16)

- (1) 겸손한 베드로
- (2)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

교회의 외적 시련: 산헤드린의 박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사도 4,1-3)

1.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

2. 사두가이들이 격분했던 두 가지 이유

- ①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을 자꾸 언급하기에
- ②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기에

3.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설교의 결과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사도 4,4)

- ① 복음 선교사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다
- ②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 가량”
“장정의 숫자는 대략 5000이었다”(직역)

4. 산헤드린의 심문과 베드로의 응답

⁷산헤드린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 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⁸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 ① “산헤드린”(7절)
- ② “가운데에 세워 놓고”(7절)
- ③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8절)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⁹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¹⁰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사도 4,8-10)

- “여러분 모두와 온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 “이것”
- “여러분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 “이 사람”(9절과 10절)

5. 당황하는 산헤드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 랫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결 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사도 4,13-14)

- (1) “무식하다”는 것의 의미
- (2) “평범하다”는 것의 의미
- (3) 불-신앙의 두 종류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회 끼리 의논하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사도 4,15-16)

- ① 누가 산헤드린의 결정 내용을 교회에 알려주었을까?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 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 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 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17-20)

- ① 침묵 명령
- ② 베드로와 사도들이 갖고 있는 확고한 부활신앙
- ③ 세속법과 하느님의 법이 충돌할 경우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 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사도 4,21)

- ① 여론의 눈치를 보는 유다지도자들

6. 박해를 이기는 신도들의 합심기도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사도 4,23-24)

- ① “동료들”
- ② 어두운 소식 앞에서 신자들이 보인 태도들

“주재자시오,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슬렁거리며 처레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사도 4,24-28)

- ① 하느님을 “주재자”(데스포타[Δέσποτα])로 부름
- ② 성경(시편 2장)을 인용해서 기도함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사도 4,29-30)

- (1) 두 개의 청을 드림
- (2) “아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아주 담대히” = 모든 담대함과 함께
- (3) 자비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청원기도
- (4)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① <성경 말씀을 이용한 기도의 예>

주님, 지금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 43,1)

주님!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려 합니다. 어려움이 인간적으로 벅차게 다가오지만, 저는 당신의 사람이기에 극복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찬미합니다.

② 성경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좋은 이유 두 가지

- ㉠ 성경말씀은 주님의 충실한 약속이기에
- ㉡ 성경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기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 있던 곳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다(사도 4,31).

- ① 하느님이 천상에서 박수를 쳐주심
- ②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의 의미
- ③ 신자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됨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의 속임수 사건

4,26^{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서, 사도들에게서 바르나바라는 -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 별명을 받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치에 놓았다.}

5,1^{그런데}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의 동의 아래, 판 값의 일부를 떼어 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사도 4,26-5,2)

1. 위로의 아들 바르나바, 교회 내 공동생활을 위한 긍정적 모델

- (1) '위로의 아들' 바르나바
 - 위로는 성령님의 은사 중 하나다
 - 바르나바가 위로의 은사를 갖고서 큰 인물로 우뚝 세워준 사람들
- (2) 키프로스 출신
- (3)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 (3)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바르나바
- (4) 재물 나눔에 대한 성찰
 - ① 청지기 정신
 - ② 재물은 애덕의 은사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의 그릇된 결정

그런데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의 동의 아래, 판 값의 일부를 떼어 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오? 그런데 어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때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요.”(사도 5,1-4)

- (1) 마음속 재앙의 씨앗을 조심하자
- (2) 하나니아스 사피라 부부의 신앙은 외형적인 신앙
- (3) 뒤틀린 한마음 한뜻의 부부

▶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하느님이 빠진 데서 온다

(4) 탐욕에 대한 성찰

(5) 영적전쟁에 대해서

-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2티모 2,3)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에페 6,10 이하; 로마 13,12-14; 1테살 5,8)

- 악마를 부정하는 것은 위태로운 짓이다.

- 영적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장소는 우리 마음이다.

4.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의 급사(急死)

하나니아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거꾸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내어다 물었다. 세 시간쯤 지났을 때 그의 아내는 그런 일을 모르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녀를 향하여 ‘당신들이 이 가격으로 밭을 넘겨주었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하자 그녀는 ‘예, 그 가격입니다’ 하고 말했다. 베드로가 그에게 ‘어찌자고 당신은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합니까? 이제 당신의 남편을 묻은 이들의 발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당신을 메고 나갈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당장 베드로의 발치에 거꾸러져 숨을 거두었다(사도 5,5-10)

(1)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의 죽음은 쇼크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징벌이다

① 적절한 애도의 절차 없이 곧장 매장해버렸기에

② “떼어놓다”란 동사 노스피조(νοσφίζω)를 통해서

(2)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 이야기는 전설인가, 사실인가?

(3)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도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산헤드린의 두 번째 박해(사도 5,17-42)

1. 산헤드린이 사도들을 붙잡아 드림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사도 5,17-21)

- (1) “그러자”
- (2)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다시금 감옥에 갇혀라
- (3) “공영 감옥”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 와서 최고 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사도 5,21-26)

2. 산헤드린의 심문과 사도들의 신앙증언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사도 5,27-33).

3. 가말리엘의 중재 연설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 사실 예수 운동이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사도 5,35-39)

“튜다가 일어나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자 그 수효가 사백 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니까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헤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호적등록 때에 갈릴래아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자가 파멸하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사도 5,36-37)

- (1) 가말리엘1세와 가말리엘2세
- (2) 가말리엘1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마운 사람인가

4. 사도들이 박해받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함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증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당할 만한 자격이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선포하였다(사도 5,40-42)

- (1) 유다 최고 의회(산헤드린)가 가말리엘의 제안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임
 - 39대의 매질을 가함
 - 침묵명령을 다시금 내림
- (2) “성전과 집에서”
- (3) 영어 단어 martyr의 두 가지 의미: “증인” 그리고 “순교자”
- (4)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됨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됨